
정책참고자료

2017-2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논의 시작된다 - 제1회「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개최 -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위원회 의사결정 공정성 제고방안’ 각계각층 의견 묻는다	7
---	---

3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열린다 - 2017 벤처창업 페스티벌 / 11.30.(목)~12.2.(토), 서울 코엑스B·C홀 -	12
---	----

4 교육부

읽으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책을 쓰는 학생들” - ‘2017 책 그리고 인문학 전국 학생 축제’개최 -	17
--	----

5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 기술로 되살아난 조선 천재화가‘신윤복·정선	22
-----------------------------	----

6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도서관의 공간, 콘텐츠, 사람에 대한 다양한 주제 토론	25
----------------------------------	----

7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마을에 깃든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농촌 여행 선정	28
--------------------------------	----

8 환경부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으로 참여한다	33
-----------------------	----

9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대토론회 전국순회 - 4개 지방자치단체와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보고대회 개최 -	37
---	----

10 여성가족부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된다.	39
--------------------------------------	----

11 국토교통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항공보안 수준 높인다	42
---------------------------	----

12 해양수산부

중·몽·러 삼국과‘新북방물류’정책 공유의 장 열려	45
-----------------------------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논의 시작된다

- 제1회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 개최 -

- 지난 10월 26일에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권역별 현장 토론회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공동으로 23일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내 삶을 바꾸는「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대전광역시 주관)」를 개최한다.
 - 이 날 토론회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 지역주민, 분권 관련 시민단체, 지역언론, 학계 전문가, 지방공무원 등 각 계각층 300여명이 참여하여 정부가 발표한「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은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의 밑그림인「자치분권 로드맵(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앞서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비 전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목 표	「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
핵심전략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추진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 현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중으로, 현장에서 직접 로드맵(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분권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2월말까지 권역별(수도권·호남권·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과 직결된 문제로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 “금일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행력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야	과제명
1.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신설
	· 기능 중심의 포괄적 지방 이양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확대
	·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 지방교부세 역할강화 및 제도개선
	· 국고보조사업 등 개편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대
	·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지방세 체납징수 및 주민참여 강화

분야	과제명
3. 자치 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지방의회 역할 확대
	·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확대
	·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강화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혁신 읍면동 추진
	·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
	· 주민소환 제도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체계 구축	· 주민 조례개폐청구제도 개선
	·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 광역연합제도 도입
	·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지방 분권형 개헌 지원	·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 지방분권국가 선언
	· 자치입법권 확대
	·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 과세자주권 확대
	·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 제2국무회의 신설
	·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공기관 위원회 의사결정 공정성 제고방안’ 각계각층 의견 묻는다

국민권익위, 21일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¹⁾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 지난해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례²⁾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기관 심의·의결기구의 공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공기관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후 3시 30분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토론회는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고려대학교 최홍석 교수가 진행하고, 국민권익위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이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학계를 대표해 김병섭³⁾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8명이다.

주요 발제내용을 살펴보면, 위원구성, 심의기준 및 과정, 회의록 관리 등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에서도 정부신뢰도가 추락하고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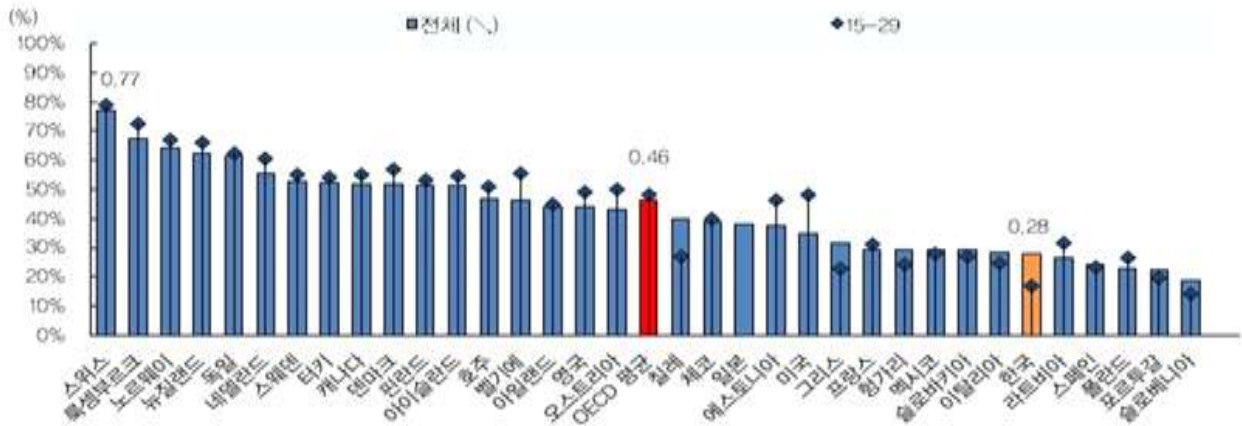
2) 특정인·단체 지원배제, 대학재정지원사업 심의기준 임의변경, 국민연금공단 부당한 의결권 행사 등

3)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전 투명성포럼 공동대표

※ '17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정책결정의 투명성 **98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1위**

'16년 OECD 사회지표 중 정부신뢰도 : 한국 28%(33개국 중 29위)



이에 공공기관 의사결정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정책고객의 정부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파악하였다

주요 개선안으로 위원구성 시 공모제·공개추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인·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혈연, 학연, 지연, 직연, 사제지간, 용역, 증언, 감정, 자문, 대리인 등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의 '단골손님'인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라 할지라도 요약 공개, 위원 비실명 공개,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 등의 확대방안을 제시 한다.

- ☐ 지정토론에서 경실련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공공기관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윤리성을 확보한 위원들의 참여와 회의록 기록 및 공개

강화”를 역설하고,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 유형별·사안별 모듈이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원재4)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국민 주도의 위원회 운영과 부당한 권력·정부의 외압 방지 대책 필요성”을 주장하고, 조철환 한국일보 기자는 “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보수 등 지원 강화” 의견을 개진한다.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위원회 성격에 입각한 차등화된 접근과 회의록 문서화 및 공개” 의견을 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윤성천 기획행정담당관은 지원사업 심의에 공무원 등의 참여 제한을 제시하고, 교육부 장미란 대학재정과장은 공개토론회에서 개진된 개선안을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공개토론회 개요
2. 공개토론회 장소(약도)
3. 공공기관 심의·의결기구 현황

4)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 토론회 개요

- 주 제 :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 토의과제 - 위원구성, 심의기준, 심의과정,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 목 적 :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일 시 : '17. 11. 21(화) 15:30 ~ 17:30 (2시간)
- 장 소 : 중소기업DMC타워 (DMC홀 2F, 서울 상암동 소재)
- 초청대상 :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약 200여명
- 향후계획 : 개선방안 보완 후 부처협의(11월), 제도개선 권고(12월)

□ 토론회 참석자 현황

- 좌 장 : 최홍석 한국행정학회 회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발 제 자 : 임윤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 지정토론(8명)

	기관명	성명	직위
정부(2)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윤성천 장미란	기획행정담당관(기획조정실) 대학재정과장(대학정책실)
학계(2)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원	김병섭 박중훈	행정대학원 교수(전 투명성포럼 공동대표,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전 행정대학원장) 행정관리연구부장
시민단체(3)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김삼수 박수정 이원재	정치사법팀장 사무총장(행안부 정보공개위 위원) 소장(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 원회 / 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언론(1)	한국일보	조철환	산업부 차장(전 경제부 정책팀장)

- 자유토론 : 토론자 및 참여자

진행순서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개회식 (15:30~15:40)	10'	■ 개회선언 ■ 국민의례	김원영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 인사말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좌장 소개	김원영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참석자 소개 (15:40~15:45)	5'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
주제발표 (15:45~15:55)	10'	■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임윤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지정토론 (15:55~17:15)	80'	■ 관계부처 · 윤성천(문체부 기획행정담당관) · 장미란(교육부 대학정책과장) ■ 시민사회단체 ·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언 론 · 조철환(한국일보 기자) ■ 연구기관 · 박중훈(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 · 김병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진행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1인 약 10분)
자유토론 (17:15~17:30)	20'	■ 토론자 및 일반 참석자 (질의·응답)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폐회 및 정리 (17:30)		■ 폐회선언	김원영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열린다

- 2017 벤처창업 페스티벌 / 11.30.(목)~12.2.(토), 서울 코엑스 B·C홀 -

- ☐ Slush(핀란드), TNW(네덜란드), Disrupt(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 미디어가 함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가 열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7 벤처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7 벤처창업 페스티벌 개요

- **일시장소** : '17.11.30.(목)~12.2.(토), 총 3일간 / 코엑스 B·C홀, 그랜드볼룸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오백볼트투, 브랜드큐,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참여대상** : 스타트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일반관객 등 2만여명
- **프로그램** : 창업자-투자자-미디어 매칭, 글로벌 컨퍼런스, 네트워킹 파티, 토크 콘서트, 전시·제품체험, 데모데이, BJ 리뷰 등

- ☐ 이번 행사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네트워킹'을 위한 유료행사(B홀)와 '벤처창업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무료행사(C홀)로 나뉘어 운영된다.
- ☐ 유료행사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투자자와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간 네트워킹 기회를 갖는다.
- 사전에 매칭된 135개 스타트업은 국내외 벤처캐피탈과 투자상담 기회가 주어지고,

- 아시아권 스타트업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에 창업아이템이 실시간으로 소개된다.
 - 사전매칭 되지 않는 스타트업도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투자자, 미디어와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존이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 시 통역도 제공된다.
 - 저녁에는 매칭에 상관없이 스타트업 생태계 모두가 참여하는 네트워킹 파티가 열려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며,
 - 현재까지 해외 180여명, 국내 1,200여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행사 개시 시 해외 500명, 국내 2,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무료행사는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선별된 270개의 벤처창업 제품 전시 및 해외 VR/AR 등 신기술 체험이 제공되고,
 - 민간 데모데이를 유치하여 60여개 스타트업의 피칭을 관람할 수 있으며,
 - 유명 1인 미디어의 스타트업 제품 리뷰와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박싱데이도 열릴 예정이다.
- 스타트업계 국내외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있다.
- 스타트업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유명연사들이 매일 기조강연과 패널토론,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 강연·토론 후에는 카페존에서 연사와 질의응답 기회도 주어진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f2017.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유료행사 참여를 위한 등록이 가능하다.

☞ (목적) 혁신친화적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창업자,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의 장(場) 마련

- 예비창업자를 비롯한 청소년, 국민들에게 혁신적·도전적인 벤처창업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창업 붐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행사명) **2017 벤처창업 페스티벌** (영문 : Startup Festival 2017)

* '벤처창업대전'과 '창조경제박람회'를 통합 → 민간 주도의 축제 의미를 담아 행사명 변경

□ (기간/장소) 11.30.(목) ~ 12.2.(토), 총 3일간 / 코엑스 B·C홀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오백볼트투, 브랜드큐 등

□ (참여대상) 스타트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일반관객 등 2만여명

□ (주요 프로그램)

- 글로벌 창업생태계 네트워킹(B홀) : 글로벌 매치메이킹, 글로벌 컨퍼런스, 네트워킹 파티, 오픈 스튜디오, 아트쇼 등

* 매치메이킹 참여자의 50% 정도를 해외기업으로 구성, 컨퍼런스 4개국어 동시통역 등

- 벤처창업 공감대 확산(C홀) : 토크콘서트, 전시·제품체험, BJ 리뷰, 데모데이, 부대행사(채도전, 상생, 1인창조) 등

구분	프로그램	규모	일시	장소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매치메이킹	135개 스타트업, 60개 투자자. 미디어	상시	B홀 매치메이킹존
	글로벌 컨퍼런스	기조연설 3회, 패널토론 9회	(매일) 11:00 ~ 17:30	B홀 메인무대
	네트워킹 파티	100 ~ 150명, 2회	(11.29. ~ 11.30.) 18:00 ~ 20:00	그랜드볼룸
	오픈 스튜디오	글로벌 미디어 주관 스타트업 인터뷰	상시	B홀 오픈스튜디오
공감대 확산	토크콘서트	특강 1회, 콘서트 2회	(매일) 10:30 ~ 17:00	C홀 메인무대
	전시·제품체험	스타트업 270개사	상시	C홀 전시관
	BJ 리뷰	1일 2회	(매일) 시간 미정	C홀 온에어관

☐ **글로벌 매치메이킹**

- 사업분야, 관심국가, 키워드 등을 토대로 사전매칭한 스타트업 (135개)과 글로벌 투자자.미디어(60개)를 연결
- 스타트업(8개사), 투자자 또는 액셀러레이터(2개사), 미디어(2개사)로 매칭존(5개)을 구성, 순환식 상담 진행

☐ **글로벌 컨퍼런스**

- 아시아 지역 성공스타트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계 유명연사 기조강연, 패널토론, 사례발표 진행

* 연사는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 **매치메이킹존 서브 프로그램**

- (SF카페) 해외연사와 관람객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구성(5개 운영)
- (미니매칭)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VC와 스타트업 대상으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4개 운영)
- (체험존) VR 등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신기술 체험 제공(6개 운영)
- (충전 500V2) 음료 및 휴대장치 충전서비스 제공(5개 운영)

☐ **네트워킹 파티**

- 행사에 참가한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및 미디어 등의 교류를 위한 캐주얼 파티 운영(11.29.~11.30. 저녁 그랜드볼룸)

☐ **오픈 스튜디오**

- 아시아 미디어 전용 스튜디오를 제작하여, 컨퍼런스 생중계, 제품 소개, 창업자 인터뷰 진행

* 아시아 미디어 싱가포르의 테크 미디어 Tech In ASIA 등

☐ 토크콘서트

- 스타트업 관심사 위주의 흥미로운 강연과 자유로운 토크의 장을 통해 국내 창업명사들의 성공 노하우와 마인드 공유

* 연사 확정시 홈페이지 공개 예정

No	프로그램명	주제(안)
1	주제강연	스타트업은 어떤 빅데이터를 보고 관찰해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에 스타트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	토크콘서트	기술은 우리의 삶과 만남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 신인류는 무엇을 보고 무엇에 열광하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투자는 어디에 있는가

☐ 벤처창업 전시 : 270개사 내외

-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환경·에너지, 생명·식품, 기계·재료, 공예·디자인 7개 테마로 벤처창업 혁신제품과 서비스 전시

* 일부 기업들은 체험존 운영

☐ 스타트업 피칭

- 스타트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에게 선보여 잠재력·경쟁력을 검증

* 벤처스퀘어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데모데이 행사를 행사장 내 유치

☐ BJ 현장리뷰, 박싱데이

- 유명 BJ의 스타트업 제품 체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 특정 시간에 스타트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시간	11/29(목)	11/30(금)	12/1(토)
오전	온에어타임(페이스북라이브)	온에어타임(페이스북라이브)	박싱데이
11시~12시	BJ 현장리뷰	BJ 현장리뷰	
오후	온에어타임(페이스북라이브)	온에어타임(페이스북라이브)	
2시~3시	BJ 현장리뷰	BJ 현장리뷰	

“읽으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책을 쓰는 학생들”

- ‘2017 책 그리고 인문학 전국 학생 축제’ 개최 -

▶ ‘나만의 스토리텔링’ 출판 소감(학생)

책 쓰기를 완성한 후 오히려 책 읽기에 대한 애착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책도 정말 멋지지만 내용 보다는 책 쓰기에 도전한 너의 용기를 칭찬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대감과 설렘만으로 도전했지만 마감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쓸 때는 작가로서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책 쓰기를 완성하고 나니 제 스스로의 성장을 느낍니다.

▶ ‘나만의 스토리텔링’ 출판 소감(교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 경험의 폭과 넓이는 얇고 좁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만의 진솔함은 누구보다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도 책을 읽는 데서 삶을 살아가는 작지만 무게감 있는 힘을 갖기를 소망하며 “읽으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책을 쓰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하고만 싶은 글쓰기를 넘어 책 쓰기를 완성한 학생들에게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기대됩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11.24.(금)부터 11.25.(토)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 책 그리고 인문학 전국 학생 축제」를 개최한다.
 - 이 축제는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강조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연계하여,
 - 학생 독서·책쓰기 및 인문학 동아리,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 등의 다양한 독서·인문소양교육 활동의 실천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2014년 ‘전국 책 축제’로 시작된 이 행사에는 매년 전국의 학생, 학부모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어,
 - 독서·인문소양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인문학 축제와 함께 개최되면서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졌다.

- 이번 축제는 크게 개막식 및 2017 전국 학생저자 책 출판기념회(이하 출판기념회), 전시마당, 발표마당, 체험마당으로 구성하였다.
- 개막식 및 출판기념회에서는 전국 학생저자 출판 책(☞ 붙임 4) 전달식, '제3회 3분 인문학 전국학생영상작품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된다.
 - 전시마당에는 학생 동아리(307팀),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33교), 2017년도 우수도서관(소화초, 산운초, 목상고) 등 독서교육 및 인문소양교육 운영 결과물을 전시한다.
 - 특히, 중국 선양에 소재한 선양한국국제학교(교장 송인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인문 고전 「열하일기」를 테마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엮은 5권의 책을 전시한다.
 - 발표마당에서는 학생 강연자가 책과 인문학적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학생 미니 특강과 학생 동아리 및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 붙임 3)
 - 체험마당은 학생들이 직접 독서·책쓰기 및 인문학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시노래 콘서트, 카이스트 노준용 교수 특강, 수업 시연, 장서인 체험, '내 이름이 꽃' 캘리그라피 벽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붙임 3)
- 교육부 권영민 교육과정운영과장은 “학생들이 책쓰기와 인문학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길 수 있어야 자기를 성찰하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독서교육과 인문소양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17 책 그리고 인문학 전국 학생 축제' 계획(전체 일정, 행사장 배치도 포함)

□ 행사 개요

- (일정) 2017. 11. 24.(금) 14:00~ 11. 25.(토) 17:00, 2일간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
※ 개막식: 2017. 11. 24.(금) 14:00~15:00
- (대상)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독서·책쓰기·인문학 동아리 학생 및 지도교사, 인문소양교육선도학교 학생, 교사, 그 외 참가 희망자 등
- (주최/주관) 교육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내용) 전시, 발표, 체험, 2017 전국 학생저자 책 출판기념회
- 그간의 축제 경과

전국 책 축제('14)		전국 학생저자 책 축제('15)		책 그리고 인문학 전국 학생 축제('16)
'14. 12. 19. ~ 12. 21. 대한민국 책과 사랑에 빠지다	⇒	'15. 11. 13. ~ 11. 15. 대한민국 책과 사랑에 빠지다	⇒	'16. 11. 18. ~ 11. 20. 우리가 쓴 책, 학교에 간 인문학

□ 주요 내용

① 전시 마당

- (전시) 학생 독서·책쓰기 동아리 결과물, 학생 인문학 동아리 및 인문소양교육선도학교 활동 결과물 등 전시 부스 상설 운영 (11.24.(금) 14:00~11.25.(토) 17:00)
※ 독서·책쓰기(159팀)·인문학(148팀)동아리, 인문소양교육선도학교(33교), 선양한국국제학교, 2017년도 우수도서관(소화초, 산운초, 목상고) 운영 결과물 전시

② 발표 마당

- (학생 미니 특강) 책과 인문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이 발표자가 되어 5분 내외의 짧은 강연 진행 (11.25.(토) 11:00~12:00)
- (발표) 분야별(책쓰기: 6팀/인문학: 5팀) 총 11팀
- (우수 사례 발표) 학생 독서·책쓰기 동아리 및 학생 인문학 동아리,

인문소양교육선도학교 활동에 대해 7분 내외 발표 (11.25.(토) 13:00~14:00)

- (발표) 분야별(책쓰기/인문학) 각 3팀씩 총 6팀

③ 체험 마당

- (상설 체험) 독서·책쓰기 및 인문학 관련 10분 이내 체험이 가능한 체험 부스 8팀 운영 (11.24.(금) 15:00~11.25.(토) 15:00)
- (특별 체험) 책쓰기·인문학 관련 시노래 콘서트, 명사 특강, 수업 시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내 이름이 꽃 캘리그래피') 이름을 꽃으로 형상화하는 전문 화백의 '이름 캘리그래피' 체험·증정 코너 운영 (11.24.(금) 15:00~17:00)
 - *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또는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뜻
 - (시노래 콘서트) 현장에서 강사가 학생들과 시를 짓고, 노래로 만들어 공연 (11.24.(금) 17:00~18:00)
 - (명사 특강) 독서 및 인문학 관련 명사(노준용 카이스트 교수) 초청, 강연 및 대화 (11.24.(금) 19:00~20:00)
 - (장서인* 체험) 장서인 작가의 장서인 제작 시연·증정 코너 운영 (11.25.(토) 09:30~10:30)
 - * 책이나 그림, 글씨의 소장자가 자기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찍은 도장
 - ('화살로 그린 이름 꽃 캘리그래피 벽화 체험) 물감이 묻은 활을 체험자들이 벽에 쏘면 전문 화백이 벽에 묻힌 물감 주위를 체험자 이름 꽃으로 형상화하여 하나의 벽화를 완성하는 코너 운영 (11.25.(토) 09:30~10:30)
 - (책쓰기·인문학 교실) 현장 교사 5인의 쉽고 재미있는 책쓰기 및 인문학 수업 시연 (11.25.(토) 15:00~16:00)

④ 카페 및 쉼터 마당

- (카페 운영) 커피 및 음료, 전통차 등과 함께 하는 휴식 공간 운영 (11.24.(금) 15:00~11.25.(토) 16:00)
- ('쉼터' 운영) 독서 및 휴식 공간,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전시벽 (11.24.(금) 14:00~11.25.(토) 17:00)
 - ※ (비치 책) 학생저자 책('16, '17) 외 문체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⑤ 개막식 및 2017 전국 학생저자 책 출판기념회

- (주요 내용) 개막식, 전국 학생저자 출판 책* 전시 및 전달식, 학생저자 소감 발표, 「제3회 3분 인문학 전국학생영상작품 공모전」 시상식 등

* 2016년 전국 학생 독서·책쓰기 동아리 142팀 중 우수 동아리로 추천된 17개 동아리에 출판비를 지원하여 출판된 17권의 책

□ 전체 일정

시간 \ 일자	11.24.(금)	11.25.(토)
종일	전시, 체험, 북카페(14:00~20:00)	전시, 체험, 북카페(09:00~17:00)
09:00~10:00	전시 및 행사 준비	'화살로 그린 이름꽃' 벽화, 장서인 체험(09:30~10:30)
10:00~11:00		
11:00~12:00		학생 미니 특강(11:00~12:00)
12:00~13:00		
13:00~14:00		독서·책쓰기 및 인문소양교육 우수사례 발표(13:00~14:00)
14:00~15:00	개막식(14:00~14:30) 전국 학생저자 책 출판기념회, 3분 영상 시상(14:30~15:00)	
15:00~16:00	'내 이름이 꽃' 캘리그라피 (15:00~17:00)	책쓰기·인문학 교실(15:00~16:00)
16:00~17:00		폐막식(16:50~17:00)
17:00~18:00	시노래 콘서트(17:00~18:00)	정리 및 귀가
18:00~19:00		
19:00~20:00	명사 특강(19:00~20:00)	

디지털 기술로 되살아난 조선 천재화가 '신윤복·정선'

- '17.11.24(금) DDP에서 미디어아트전 '바람을 그리다 : 신윤복·정선' 개소 -
- 신윤복, 정선의 국보급 원화 56점과 미디어아트 17점 복합 전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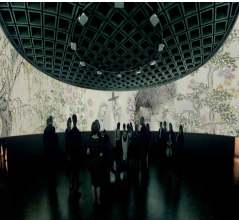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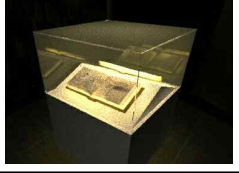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원하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미디어아트 기획전 '바람을 그리다 : 신윤복·정선'이 11월 24일(금)부터 6개월간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2층 디자인 박물관에서 개최된다.
- 이 기획전에서는 440평의 전시공간에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유한 혜원신윤복의 '혜원전신첩', 겸재 정선의 '충석정' 등 원화 56점과 이 두 거장의 작품을 디지털 기술로 제작한 미디어아트 17점이 함께 전시된다.
 - 혜원 신윤복은 '미인도'를 비롯하여 국보 제135호 '혜원전신첩'으로 잘 알려진 최고의 풍속 화가이고, 겸재 정선은 인왕제색도와 금강산으로 유명한 조선 최고의 진경산수 화가이다.
 - 미디어아트는 두 거장의 작품 배경이었던 조선시대 한양 풍속(신윤복)과 금강산 풍경(정선)을 중심 주제로 하여, 신윤복의 월야밀회(月夜密會), 정선의 충석정(叢石亭) 등의 원화를 바탕으로 17종이 제작되었다
 - 이 미디어아트들은 신윤복의 관능적인 색상과 정선의 웅장한 화풍을 느낄 수 있도록 3D 맵핑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작품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스토리 등을 가미하여 관람객의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 내도록 제작되었다.
 - 이렇게 만들어진 미디어아트는 21미터 초대형 미디어 월, 15미터 크기의 서클비전 등 전시장 벽면 여러 곳에 대화면으로 투사되어,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또한, 신윤복 그림 속의 다양하고 화려한 의상을 한복디자이너 이영희 작가가 재현하여 전시하고 한국의 대표적 미디어아트 작가인 이이남의 금강내산 등의 작품도 전시한다.
- 과기정통부는 문화유산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문화유산의 고도화와 관광자원 확충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신 시장 개척을 위해 2014년부터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Digital Heritage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기획전의 콘텐츠 제작비 4억4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약 53억 원을 투입, 전국 12개소에 디지털 헤리티지 체험관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문화재를 지킨 전형필 선생님의 간송미술관과 이 사업을 함께하여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대중화와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시장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바람을 그리다 : 신윤복·정선展’ 전시개요

붙임 2

‘바람을 그린다 : 신윤복·정선展’ 전시개요

구분	사진	주요내용	등장 작품
주제 영상		[와이드비전] 바람타고 한양에서 금강산까지(5분) 가상의 선비가 신윤복과 정선의 작품 7편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양부터 금강산까지 여행하는 애니메이션 * 멀티 프로젝션 맵핑(4대), 미디어월(13m), 2D모션그래픽	쌍륙삼매(雙六三昧) 월야밀회(月夜密會) 남량만흥(納涼漫興) 문암(鄭叡), 정안사 단발령, 망금강 등 7점
신윤복		[서클비전] 멋으로 즐기고 사랑으로 풍요로워지다(5분) 신윤복의 작품속에 내재된 한양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하여 15m 서클비전에 구현 * 멀티 프로젝션 맵핑(4대), 미디어월(15m), 3D모션그래픽	연소답청, 임하투오, 쌍검대무, 주유청강, 주사거배, 월하정인
		[멀티비전] 한양 속 다섯가지 이야기(1분×5편) 한양의 도시 생활을 음주·가무·연애·놀이·나들이 5개 주제로 구분, 주제별 광고형식 무비로 제작 * 멀티비전(5대), 2D/3D 모션그래픽	무녀신무(巫女神舞) 홍루대주(紅樓待酒) 월야밀회(月夜密會) 쌍륙삼매(雙六三昧) 연소답청(年少踏青)
		[실물전시] 신윤복의 해원전신첩 30점 전시 조선 한양의 향락적 유흥과 남녀간의 춘정들을 생생하게 표현한 30점의 풍속화첩[국보 제135호]	춘색만원(春色滿園) 소년전홍(少年剪紅) 정변야화(井邊夜話) 등 30점
정선		[서클비전] 굽은선은 물결로 살아나고(4분) 정선이 금강산 작품에서 표현한 곡선과 직선의 미학을 21m 대형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제작 * 멀티 프로젝션 맵핑(8대), 미디어월(21m), 사운드스케이프	금강내산(金剛內山) 불정대(佛頂臺) 총석정(叢石亭)
		[멀티비전] 발상의 전환, 진경을 만들다(5분×2편) 현대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이 제작한 금강전도로 금강전도에 헬기가 뜨고 전쟁이 일어난다 * 55인치 디스플레이(2대), 액자형 프레임	금강전도(金剛全圖) 금강내산(金剛內山)
		[실물전시] 정선의 진경산수화 26점 전시 금강산 서쪽 내금강부터 동쪽 외금강, 해금강에 이르기까지 금강산수에 담긴 정선 26점 전시	삼일호(三日湖), 총석정(叢石亭), 죽서루(竹西樓) 등 26점

미래도서관의 공간, 콘텐츠, 사람에 대한 다양한 주제 토론

- 11. 28. 제3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 포럼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숙원, 이하 도서관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3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래도서관 - 공간, 콘텐츠, 사람들'이다.

지난 3월부터 문체부와 도서관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등이 펼쳐지는 다변화 사회에서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실행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공간·사람·콘텐츠와 서비스 등 분야별 관련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도서관정책기획포럼'을 기획하고 활발한 논의를 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발제와 정책과제 등을 종합해 (주)이가디자인 이정희 대표, 신라대 서혜란 교수, 성균관대 심원식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서 디자인연구소 이선 김종대 대표, 월간 스페이스(space) 박성진 편집장, 서울시 엔피오(NPO) 지원센터 정선애 센터장,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성해영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는 폭넓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도서관 사서들을 비롯한 도서관 관련 단체,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학생 등 300여 명이 포럼에 참석해 '미래도서관의 공간, 콘텐츠, 사람'에 대한 도서관 정보와 정책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신숙원 위원장은 "인공지능, 거대자료(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은 미래의 지능정보사회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도서관 현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미래도서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상세한 일정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누리집(<http://cl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전문가들의 발제와 제안을 담은 ‘2017년 도서관정책기획포럼’ 책자도 함께 볼 수 있다.

한편, 제5기 도서관위원회는 ‘16년에 출범한 이후 도서관의 진화하는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자격제도 개선(제1회)’, ‘도서관의 협력과 공유(제2회)’를 주제로 미래도서관 정보정책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붙임 1. ‘제3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 포럼’ 개요 및 일정

□ 행사개요

- (주 제) ‘미래도서관-공간, 콘텐츠, 사람들’
- (목 적) 4차 산업혁명 등 다변화 사회에 도서관의 정책과제 발굴 및 신규모델 창출을 통해 도서관의 진화하는 역할과 발전적 추진방향 모색
- (일시/장소) 2017. 11. 28.(화)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최/주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참가대상) 도서관 사서, 문헌정보학과(교수 및 학생), 유관단체 등 300여명
- (발제/토론) 도서관 및 문화·예술·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

구 분	발표 및 토론자
발제 (3명)	(공간) 이정희 (썬이가디자인랩 대표, (사람) 서혜란(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콘텐츠·서비스) 심원식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토론 (15명)	(공간) 황금숙(대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중대(디자인연구소 이선 대표) 박성진(월간 space 편집장), 박재우(지음 아틀리에 소장), 임호균(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교수) (사람) 정연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진우(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장)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정선애(서울시 NPO 지원센터장) (콘텐츠·서비스) 최화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규환(전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성해영(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오지은(광진정보도서관장), 이재윤(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허병두(서울 송문고 교사)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3:30 ~14:00 30'	○ 등 록	* 진행 : 류은영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14:00 ~14:10 10'	○ 개회사 및 인사말	신숙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14:10 ~14:30 20'	○ 발제(공간)	이정희 (썬이가디자인랩 대표
14:30 ~14:50 20'	○ 발제(사람)	서혜란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4:50 ~15:10 20'	○ 발제(콘텐츠·서비스)	심원식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5:10 ~15:20 10'	○ 휴 식	
15:20 ~17:00 100'	○ 종합 토론	* 진행 : 황금숙 대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7:00 ~	○ 폐 회	

‘우리 마을에 깃든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농촌 여행 선정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12월, 다양한 이야기가 깃든 특별한 농촌
 여행지로 출발!

《 주 요 내 용 》

◆ 겨울철에 연인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 지역
 체험·관광명소를 주제별 여행경로 선정

○ 농촌체험마을, 낙농체험목장, 농촌교육농장 등 우수 농촌관광자원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

지 역	우리 마을에 깃든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주제별 농촌여행 경로 6선
경 기 (남양주)	[힐링·문화]물의정원 → 초록향기 →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 남양주종합촬영소
인 천 (강화)	[역사·체험]강화평화전망대 → 강화고인돌유적 → 강화풍물시장 → 행복나들이 불은마을
충 남 (청양)	[겨울·자연]알프스마을 → 천장호 출렁다리 → 철갑산천문대스타파크
충 남 (부여)	[역사·문화]능산리 고군분 → 부여기와마을 → 테마파크 백제원 → 백제문화단지
전 남 (강진)	[역사·음식]다산초당 → 녹향월촌권역 → 강진다원 → 하멜기념관
전 남 (무안)	[낙농·체험]파도목장 → 톱머리 유원지 → 월선권역 → 초의선사 유적지

◆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웰촌, www.welchon.com)’ 에서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첫눈이 소복이 쌓이는 12월, ‘우리 마을에 깃든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주제별 농촌여행 경로’를 선정하였다.

*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매월 계절·주제에 적합한 농촌여행경로를 선정, 발표해 오고 있음

- 12월에 선정된 여행경로는 마을에 깃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낙농체험목장, 농촌교육목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눈이 소복이 쌓이는 계절, 저마다의 소소한 이야기를 품은 농촌관광지에서 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농촌여행경로가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경로는 각 경로별로 주제가 있어 여행객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 경기(남양주)는 ‘힐링·문화’, 인천(강화)은 ‘역사·체험’, 충남은 ‘겨울자연’ (청양), ‘역사문화’ (부여) 2개 주제, 전남은 ‘역사음식’ (강진), ‘낙농·체험’ (무안) 2개 주제로 총 6개의 주제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 선정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웰촌, 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촌 관광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 계절별·월별로 여행주제를 선정하고 우수 농촌관광자원과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을 포함한 농촌여행경로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 ① 경기도(남양주)는 힐링·문화주제 경로로써,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에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물의정원, 딸기체험, 고구마 수확체험, 두부만들기, 고추장만들기, 김치담그기 등 다양한 농경문화 및 전통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이자 스타팜인 초록향기, 유기농 관련 콘텐츠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유기농 먹거리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파머스마켓이 있는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그리고 촬영스튜디오, 영상관, 오픈세트 등이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촬영시설 남양주종합촬영소 등 4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이다.
- ② 인천광역시(강화)는 역사·체험테마코스로써,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생활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강화평화전망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강화돌고인돌유적, 강화도의 지역 특산물인 화문석과 인삼을 판매하고, 각종 먹거리가 풍부한 우리나라 재래시장 강화풍물시장, 그리고 속노랑고구마 수제비만들기, 두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행복나들이 불은마을 등 4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이다.
- ③ 충청남도는 겨울·자연테마코스(청양)로써, 조롱박 공예, 박미스트 만들기, 쥬트랙, 승마 등 체험을 할 수 있고 얼음분수축제가 열리는 알프스마을, 다리 한가운데 청양의 특산물 고추와 구기자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는 흔들다리인 천장호 출렁

다리 그리고 망원경을 통해 계절별 천체 관측이 가능하고 돔 스크린을 통해 실제 밤하늘과 같은 천체를 보며 천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칠갑산천문대스타파크 등 3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와,

- ④ 또한 **역사문화테마코스(부여)**로써, 백제 왕실의 묘비들이 있는 사적 제 14호 능산리 고분군, 솟대 만들어 소원 빌기, 나무 곤충 만들기, 백제떡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부여기와마을**, 전시실, 식물원, 공방, 체험교실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백제원**,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 그리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백제역사문화관** 등이 있는 백제문화단지 등 4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이다.

- ⑤ 전라남도는 **역사음식테마코스(강진)**로써,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던 중 머물렀던 **다산초당**, 우리콩 손두부 만들기, 나만의 호떡 만들기, 매작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녹향월촌권역**, 큰 바위들과 녹차밭이 펼쳐있어 경치가 뛰어난 **강진다원**, 그리고 하멜이 태풍을 만나 조선에서 14년간 표류했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하멜기념관** 등을 연계한 4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와,

- ⑥ 또한, **낙농·체험테마코스(무안)**로써, 바다를 배경으로 자연을 느끼며 우유 짜기, 소꼴주기, 치즈체험, 초지체험 등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낙농체험목장 파도목장**, 드넓은 해수욕장

에서 고동 줍기, 굴 따기 등을 할 수 있는 톱머리 유원지, 도자기 만들기, 천연 염색, 농사체험, 한우체험, 짚풀공예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월선권역, 그리고 초의 대선사의 탄생지이자 그의 높은 정신을 기리고 추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의선사 유적지 등을 연계한 4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 등 총 7개의 코스로 구성되었다.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으로 참여한다

◇ 11월 21일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 개시

◇ 국립공원 자원봉사,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연계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11월 21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 자원봉사는 국민의 국립공원 관리 참여와 환경 보전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매년 약 7만 명이 희귀식물 관찰, 외래식물 제거, 탐방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 그간 국립공원 자원봉사는 개인용 컴퓨터(PC)로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이나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했다.
- 이번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은 모바일 웹을 통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volunteer.knps.or.kr)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원봉사' 메뉴를 클릭해 회원에 가입한 후 봉사할 국립공원과 날짜, 프로그램 등을 선택하면 된다.
-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10월 국립공원 자원봉사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실적 연동을 완료했다.
- ※ 1365: 전국 자원봉사 정보 조회, 신청, 실적확인이 가능한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포털
- 이에 따라 1365 회원이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에 연동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도 실적이 등록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실적과 1365 자원봉사 포털 실적이 실시간으로 통합돼 개인별 자원봉사 실적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 기대했다.

- 특히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이미 연동되어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go.kr) 나이스(NEIS)와도 자동으로 실적이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원봉사 실적 관리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김종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 조성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은퇴세대의 재능기부, 미래세대의 자원봉사 체험 등 각 세대의 목적에 맞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국립공원 자원봉사 참여방법.
2. 국립공원 자원봉사 운영현황.

붙임 1

국립공원 스마트폰 자원봉사 참여 방법



1. 국립공원 회원가입 →



2. 자원봉사 바로가기 →



3. 스마트폰 간편 예약 →



4. 공원 및 프로그램 선택 →



5. 날짜 선택 →



6. 시간 선택 →



8. 시작 인증 및 활동시작 →



9. 종료 인증 →



봉사활동 완료

□ 배경 및 목적

- (배경) 자원봉사를 통한 국민의 공원관리 참여 유도 및 보전의식 증진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1996년 제도 도입
- (목적)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재능기부(은퇴자 다문화 등)를 통한 자원 봉사자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

□ 운영방법

- 국립공원 자원봉사 홈페이지(<http://volunteer.knps.or.kr>)를 통한 참가자 모집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운영현황

- 최근 5년간 자원봉사 운영 현황

(단위 : 명, 시간)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참여인원	40,967	55,681	51,183	57,634	70,213
참여시간	195,481	272,277	274,641	300,508	331,654

- 자원활동가 운영 현황

(단위 : 명, 시간)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인증인원	378	579	676	807	856
활동시간	31,772	51,806	75,913	99,236	144,755

- ‘16년 분야별 참여

(단위 : 명, 시간)

구 분	활동인원	활동시간	비율
계	70,213	331,654	
공원자원보전	7,036	35,432	10%
공원환경보호	45,390	209,648	65%
지역사회협력	7,040	38,039	10%
탐방서비스	10,747	48,535	15%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대토론회 전국순회

- 4개 지방자치단체와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보고대회 개최 -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시흥시, 속초시)을 순회하며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 22일 속초시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시흥시, 28일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 각각 지역노사정을 포함한 지역 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난 3개월간 지역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여 그 모델을 적용하고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4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컨설팅을 지원받았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 ☐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일자리 모델이 양적으로 일자리의 증가와 더불어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두 가지 성과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역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지역 토론회 행사개요

1. 속초시

- 일 시: 2017.11.22.(수) 15:00 ~ 17:00
- 장 소: 속초시청 (2층, 디지털상황실)
- 주 제: 속초지역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 프로그램

진행시간	시간(분)	내 용	
15:00~15:15	15	개회사 및 인사말	이병선(속초시장)
15:15~15:45	30	○ 주제 발표: 속초지역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박준식 교수(한림대학교)	
15:45~17:00	75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노: 허찬범(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 의장), 김임형(전국관광서비스연맹강원 지역본부 의장)
		- 지정토론 각 5분 발표	사: 하명호(속초상공회의소회장), 정래권(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민: 윤광훈(속초시 번영회장), 최종현(속초시 의원)
			정: 김용구(속초시 경제진흥과장), 장영조(고용부 강릉지청장)
		- 종합토론 및 결론	
17:00		폐 회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대상 의무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이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월)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 ①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법 제5조 제6항 신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해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제2항 신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교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학생 지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실시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 또한, 이번 법률 개정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호 이해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개정안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u>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의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들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u>	<u>③ -----제1항 및 제2항에-----</u> ----- ----- ----- <u>결혼이민자들과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u>

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의-----

-----.

⑤ -----제4항에-----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2항에-----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항공보안 수준 높인다

22일 인천서 항공보안 세미나…국제 항공보안 대응체계 구축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2일(수) 오후 13:30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항공보안 발전방향과 국·내외 보안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 지난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항공보안 세미나는 정부와 산·학·연 등 항공보안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내·외 최신 항공보안 동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한다.
-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보안을 총괄하는 실방 르포와르(Sylvain Lefoyer) 항공운송국 부국장을 기조연설자로 특별히 초청하여, 최근 ICAO 이사회에서 승인된 글로벌 항공보안계획(Global Aviation Security Plan)의 자세한 내용을 처음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이날 발표에서 ICAO 부국장은 글로벌 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전 세계가 '19년까지 이행하게 되는 5개 분야* 32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과제별 세부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 * 감독 및 품질관리기능 강화, 고성능 보안장비개발, 보안인식제고 및 보안인력 역량강화, 국내외 협력강화, 위협인지수준 제고 및 효과적 대응 등
- 이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효율적인 항공보안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항공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아울러 연구발표를 한 분야별 전문가가 ‘국가 항공보안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항공보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넬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은 향후 항공보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보안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세미나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실시하는 만큼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공보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2017년 항공보안 세미나 개최 계획 1부

□ 행사개요

- 時.所 : '17. 11. 22(수) 13:30 ~ 18:00 / 그랜드 하얏트 인천
-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 참석자 :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ICAO 항공운송국 부국장(Sylvain, Lefoyer), 인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여명

□ 행사일정(안)

구 분	세 부 내 용
《 개 회 식 》 13:30 ~ 14:30	■ 항공정책실장 개회사 * (환영사) 인천공항공사 사장, (축사)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기조연설) ICAO 항행국 부국장 (ICAO 글로벌 항공보안계획 발표)
《 세 셴 1 》 14:40 ~ 16:00	■ 국제기구 및 국가 항공보안 발전방안 (발표 후 패널토론) ① ICAO 항공보안교육 및 지원 활성화 방안 (ICAO Paul NAM, 항공보안담당관) ② 항공보안 정책동향 (국토교통부, 박상현 항공보안감독관) ③ 자율신고제도를 통한 국가항공보안수준 향상 (교통안전공단, 이강준 박사) ■ 질의응답 및 패널토론 - (좌장) 항공대 황호원 교수, (패널) 발표자 등 5인
《 세 셴 2 》 16:10 ~ 17:30	■ 효율적인 항공보안 대응체계 구축 ① 인천공항공사 : 세계 최고 항공보안 대응방안(신동화 팀장) ② 한국공항공사 : Smart Security(윤기동 과장) ③ 제주항공 : 항공보안 통합시스템(김달섭 과장) ④ 인천공항공사 : 국제항공보안평가(이주형 차장)

중·몽·러 삼국과 ‘新 북방물류’ 정책 공유의 장 열려

- 해수부, 11.23 부산에서 2017 북방물류 국제컨퍼런스 개최 -

북방물류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7 북방물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북방물류시장 : 몽골 동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 등 유라시아 대륙 동쪽 관문을 지칭

이번 행사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로, 우리나라 외에 중국, 러시아, 몽골의 정부 인사, 학계, 민간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신(新)북방정책 비전 중 물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신(新)북방물류 :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각국의 최신 정책, 개발 계획 및 신규 물류 사업을 공유하고, 관련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 주요국 지역물류 개발계획 ▲물류기업의 새로운 물류사업 ▲ 북방물류시장의 현실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중국·몽골·러시아는 북방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진행 중이며,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 개발을 위한 ‘동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몽골 역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는 ‘초원의 길’ 계획을 주창하고 있다.

본 콘퍼런스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주요 대외경제정책 중 물류 분야의 사업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몽골·러시아 등 관련 국가와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북방지역은 지정학적 중요성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새로운 물류 경로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국내 해운 물류 기업이 북방물류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컨퍼런스 개요

- (時 · 所) '17.11.23(목), 10:00~18:00, 부산(웨스틴조선호텔)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 중앙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
- (참석자) 한·중·러·몽골 정부 인사 및 학계·기업인 등 100여명
- (주제) “新북방물류 : 도전과 과제”
 - 각국 정책동향·개발계획 소개, 물류기업의 프로젝트 공유, 북방물류 시장의 현실과 과제 발표 및 토론

□ 세부프로그램 [안]

구 분	시 간	세 부 프 로 그 램
리셉션	09:30-10:00	◆ 참석자 등록 및 VIP 사전환담
개막식	10:00-12:00	◆ 개회사 :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 축사 : 우예중, 부산항만공사 사장 ◆ 기조연설 : 최근 북방물류 정책의 변화 (사회 :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① (중) 안국산, 연변대학교 교수 ② (러) 유리 보리소비치 페트로프, 교통부 수석보좌관 ③ (몽) 강바타르 다시더르지 도로교통부 국제협력국장 ④ (한) 박성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기념사진 촬영
오찬	12:00-13:30	오찬
1세션	13:30-15:10	◆ 주제 : 주요 지역 물류 개발 계획 (사회 :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 ① (중) 장동명 요녕대학 동북아연구원 원장 ② (러) 게오르기 니콜라예비치 콜파체프 극동개발부 극동투자수출청 부청장 ③ (몽) 세브짓 더르즈닥와 도로교통부 도로교통조사과장 ④ (한) 진규호 부장 부산항만공사(BPA)
휴식	15:10-15:30	Coffee Break
2세션	15:30-17:10	◆ 주제 : 물류기업의 새로운 물류프로젝트 (◆ 사회: 안국산 연변대학교 교수) ① (중) 고명 길림성동북아 해상실크로드 사장 ② (러) 콘스탄틴 쉘벤코프 트랜스컨테이너 대표 ③ (몽) 수해 앵호바야르 몽골 해양청 사무관 ④ (한) 유재호, YJC 대표
토론	17:10-17:50	◆ 주제 : 북방물류 시장의 현실과 과제 ◆ 사회: 구정모 강원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장) ◆ 토론자 : 각 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폐회	17:50-18:00	폐회